

“술은 관계와 관계없다”,

연말연시 절주·금주 공익광고 공개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2026년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 공개 및 캠페인 추진 -
- 진정한 관계는 술이 아닌 만남과 소통으로... ‘흑기사 은퇴’ 등 유쾌한 영상으로 인식 전환 유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현주)은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연말연시 절주·금주 실천 의지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술은 관계와 관계없다’ 2편(마지막 흑기사 편, 도수 말고 횡수 편)을 공개했다.

2026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캠페인 표어(슬로건)는 ‘술은 관계와 관계없다’로 진정한 관계는 술이 아닌 만남과 소통이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술자리에서 거절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위기를 바꾸고, 마시지 않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공익광고는 이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편으로 제작했다. 먼저, ‘마지막 흑기사 편’은 술자리에서 남의 술을 대신 마셔 주던 ‘흑기사’가 은퇴한 미래를 상상하며 시작해, “안 마셔도 돼”라는 배려가 당연한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흑기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 결국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해당 광고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세 가지(30초 본편, 15초 편, 확장 편)로 제작했다. 15초 편에는 은퇴한 흑기사의 기자회견 현장을, 확장 편에는 흑기사가 은퇴하게 된 사정을 더 상세하게 담았다. 각 영상은 송출 매체에 맞춰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수 말고 횡수 편’은 메시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흔히 술자리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고 착각하지만, 좋은 관계는 술이 아니라 만남과 소통의 횡수가 쌓여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각적인 화면으로 표현했다.

올해 공익광고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했으며,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앞둔 10월 말부터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공익광고 송출과 함께 ‘2026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캠페인’도 본격 추진한다. 다양한 채널의 창작자(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술은 관계와 관계없다’라는 메시지를 확산하고, 자신의 음주량을 대체 가치로 환산해 보는 온라인 참여형 홍보 ‘음주 기회비용 계산기’를 운영해 전주·금주 실천 의지를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음주폐해예방의 달 캠페인은 술을 대인관계의 필수 요소처럼 여기던 기존 인식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술을 마시지 않는 선택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주 조장 환경을 개선해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공익광고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좋은 관계의 본질은 술이 아닌 진솔한 소통이라는 점을 전하고자 했다”라며,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많은 국민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이러한 참여가 전주·금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년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와 캠페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주온(<https://www.khepi.or.kr/alcoholstop>), 무음모드온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no_alcohol_mode_on/)

<붙임> 2026년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 주요 장면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책임자	과 장	전은정 (044-202-2820)
		담당자	주무관	김보은 (044-202-2835)
<담당부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사업단	책임자	단 장	이현지 (02-3781-3578)
		담당자	단 원	최수아 (02-3781-3576)

□ 마지막 흑기사 편(30초) 주요 장면



"마지막 흑기사의 갑옷입니다.
남의 잔을 대신 비우던 사람이죠."



"거짓말! 중세도 아니고."
"내가 흑기사였다네." / "예?"



"안 마셔도 돼."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배려를 하기 시작했어.



"안 마셔도 돼."
그게 막 퍼져 나갔지.



"안 마셔도 돼."
내가 할 일이 없더군.



그래서 우리 흑기사들이 은퇴를 했지.



술 없어도 괜찮은걸,
다들 그때 안 거죠?



그래,
그때부터 내가 백수야.

	 
술은 관계와 관계없다.	무음모드 ON

□ 도수 말고 횡수 편(30초) 주요 장면

	
친해지려면 술이 필요하다고요? 아니에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별일 없어도 먼저 말 걸고,	별것도 아닌 얘기에 같이 웃고 떠들고,
	
그러다 어느새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p>도수 말고, 흰수예요.</p>	<p>자주 이야기만 나눈다면 술, 없어도 돼요.</p>
	
<p>술은 관계와 관계없다.</p>	<p>무음모드 ON</p>

2026 음주폐해예방 캠페인

무음모드 ON



보건복지부

KHEPi

한국건강증진개발원